

sipri

PEACE
MOMO

SIPRI YEARBOOK 2020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한국어 요약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IPRI는 분쟁, 군비, 군비통제, 군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제연구소이다. 1966년에 설립되었고,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권고사항 등을 정책결정자, 연구자, 언론 및 관심 있는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SIPRI 연감

2020년 SIPRI 연감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 국제무기이전, 무기생산, 핵전력, 무력분쟁, 다자간 평화활동 분야의 독자적인 데이터 및 군비통제, 평화, 국제안보 분야 등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에 대한 최신의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2020 SIPRI 연감을 요약한 내용이며 연감에 포함된 표본 데이터 및 그 분석을 제공한다.

목차

1. 도입: 2019년 국제안정과 인간안보	1
2019년 무력분쟁 및 분쟁관리	
2. 무력분쟁, 평화프로세스 및 평화활동의 국제적 현황	2
3.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 미주	4
4.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5
5.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 유럽	6
6.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 중동과 북아프리카	7
7.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
2019년 군사비 지출 및 군비	
8. 군사비 지출	10
9. 국제무기이전과 무기생산동향	12
10. 세계 핵전력	14
2019년 비확산, 군비통제, 군축	
11. 핵 군비축소, 군비통제 및 비확산	16
12.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18
13. 재래식무기 통제 및 신무기 기술	19
14.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
부록	22



1. 도입

2019년 국제안정과 인간안보

댄 스미스 DAN SMITH

이번 제51호 SIPRI 연감은 국제적 안정을 위한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군사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세계무기이전의 추정가치, 최근에 만성화 되어가는 무기통제의 위기, 그리고 점점 더 치명적으로 변해가는 국제지정학 및 지역경쟁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많은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들 중 협상이 합의될 조짐이 보이는 곳은 거의 없다.

일촉즉발의 위기

2019년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위험한 분쟁들이 있었다. 이란은 미사일공격, 대리공격(proxy attack), 그리고 2019년 중반 페르시아만 항행 자유의 위협 등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국들,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미국과 전쟁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 다 핵무장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카슈미르(Kashmir) 지역으로 인한 무력분쟁이 증가하였다. 위 두 사례 모두 결국은 진정되었지만, 전통적인 위기관리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무기통제

2019년 핵무기통제는 크게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추가적인 지연이 있었다. 미국은 1987년 체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조약)을 철회하였고, 러시아도 조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감축협약인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만료 기한인 2021년 2월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추가로 미국

과 북한 사이에 있었던 비핵화에 대한 논의들은 2019년 동안 동력을 잃었다.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은 2019년 연말까지 거의 기능하지 못했다.

기후위기

2019년에는 다행스럽게도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행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과 그 행동이 미치게 될 영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곳에 평화세우기를 할 때에도 종종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의 기후관련 안보문제에 대비할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다. 국제협력의 증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국제협력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시대의 다른 주요과제들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정치란 늘 긴장과 불일치가 있고, 특히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불일치는 국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를 싫어하는 정부들조차 공동의 문제들에 대해 협력적 접근 없이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은 여러 국제적 문제들에 대해 인간안보와 국제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 무력분쟁과 평화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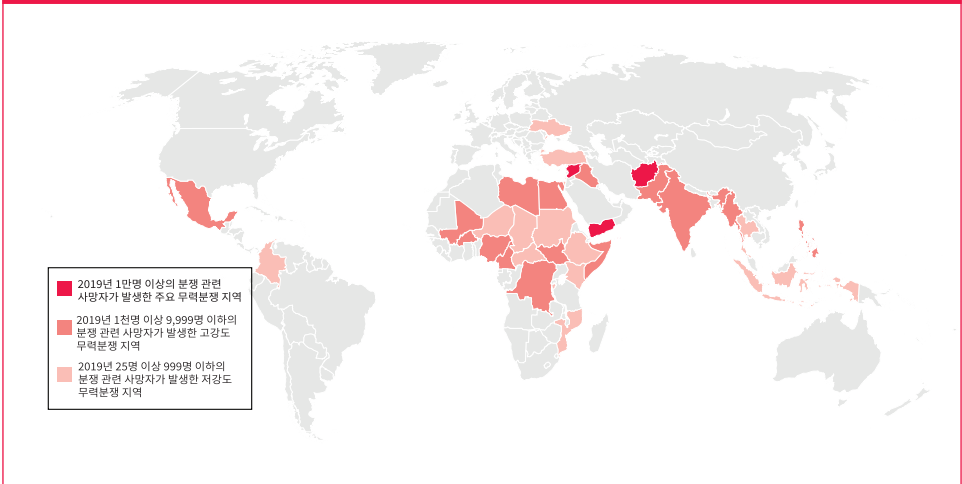
2019년에는 미주 2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7개, 유럽 1개, 중동 및 북아프리카 7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15개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최소 32개국에서 실제적 무력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무력분쟁은 단일 국가 안에서 정부군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국가 무장단체들 사이에서 일어났었다. 1만 명 이상의 분쟁 관련 사망을 기록한 주요 무력분쟁(major armed conflicts)은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세 나라에서 일어났다.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분쟁 관련 사망을 기록한 고강도 무력분쟁(high-intensity armed conflicts)은 멕시코,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DRC), 이라크, 부르키나 파소, 리비아, 말리, 남수단, 필리핀, 인도, 미얀마, 카메룬, 파키스탄, 이집트 등 총 15개의 국가에서 일어났다. 나머지는 저강도 무력분쟁(low-intensity armed conflicts)(25명~999명의 분쟁 관련 사망)이었다. 국가 간의 무력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이 1건 있었고, 국가의

군대와 국가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집단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터키-쿠르드 등 2건이 있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무력분쟁과 대부분의 고강도 무력분쟁은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

무력분쟁 결과

2019년에는 여러 무력분쟁의 심각성이 감소함에 따라 사망자 수가 줄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2014년 이후부터 계속되었다. 2019년 초 전 세계에서 강제 이주된 주민의 숫자는 7,080만 명이다. 이는 2,590만 명 이상의 난민을 포함한 숫자이다. 장기 이주 위기는 사헬 지역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및 예멘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 2019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소말리아 및 남수단 등 5개국과 차드분지호수 및 중앙 사헬 등 2개 지역에 거주하는 약 3천만 명의 주민들은 긴급 식량, 영양지원 및 생계지원 등이 필요했다.

2019년 무력분쟁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경계는 SIPRI의 승인 또는 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분쟁 관련 사망자 추정

2019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총 다섯 곳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 추정치를 가진 무력분쟁이 발생했다. 이 다섯 국가에서 발생한 분쟁관련 사망자는 총 98,000명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분쟁관련 사망자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평화협약

2019년 21개의 새로운 평화협약 중, 10개는 지역적 협약이었고, 11개는 국가적 협약이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적 협약은 갠신 또는 이행과 관련한 협약이었다. 새로운 국가적 평화협약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 두 곳에서 체결되었다. 에티오피아(2018년)와 수단(2019년)에서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권력이동이 있었고, 2018년 남수단은 평화협약이 시행되면서 위 세 국가의 무력분쟁은 2019년 크게 감소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미국 평화회담이 2019년 11월 재개되기까지 무너져 있었고, 예멘에서는 2018 스톡홀름협약(Stockholm Agreement)이 2019년 11월 리야드협약(Riyadh Agreement)이라는 새로운 평화협약으로 보완되면서, 가장 지지부진하고 복잡했던 두 곳의 무력분쟁은 2019년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내었다.

다자간 평화활동 동향

2019년에는 전년대비 1개 추가된 61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있었다. 헤브론 임시국제감시단(TIPH)과 유엔아이티정의임무단(MINUJUSTH) 등 2개 활동이 중단되었고, 유엔아이티정의임무단을 잇는 아이티유엔통합사무국(BINUH), 예멘 유엔호데이다합지원단(UN-MHA), 그리고 새로운 권한이 시작되면서 다자간 평화활동이 된 리비아 유럽연합국경지원단

(EUBAM) 등 3개 활동이 시작되었다.

다자간 평화활동의 수가 조금 증가했지만, 활동에 배치된 인원의 수는 2018년 12월 31일의 144,791명에서 2019년 12월 31일 137,781명으로 4.8% 감소했다. 이 감소는 주로 유엔의 평화활동에서 발생했고,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유엔은 여전히 전체 다자간 평화활동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평화활동에 배치된 모든 인원의 거의 2/3를 책임지고 있는 선도적 조직이다.

소말리아임무단(AMISOM)은 세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가장 대규모의 다자간 평화활동이었다. 2018년과 동일하게 에티오피아는 평화활동에 군대를 가장 많이 파견한 국가였고, 미국과 우간다가 뒤를 이었다. 미국과 우간다는 주로 비-유엔 활동에 대한 기여로 인해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되었다.

2019년 유엔에 대한 적대행위에 따른 사망률(hostile deaths among uniformed UN personnel)은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유엔 말리안정화임무단(MINUSMA)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



3.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 미주

2019년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정의된 바에 따른 비국제적 무력분쟁(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은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 미주지역 두 국가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의 엄격한 정의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무장 폭력이 위 국가들과 미주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혁명군(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Ejército del Pueblo, FARC-EP)과 맺었던 2016 평화협약의 실행은 2019년 내내 계속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콜롬비아 정부는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몇 개의 비국가 무장단체들과 무력분쟁이 있었고, 추가적인 분쟁이 해당 단체들 사이에서도 있었다. 무장단체들의 분열은 평화협약 비준 이후 지속되어온 살얼음판 같은 평화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이다.

멕시코

2019년에 한 세기 동안 가장 많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멕시코에서는 국가와 범죄조직연합체인 할리스코 신세대카르텔(Cártel Jalisco Nueva Generación, CJNG)간의 비국제적 무력분쟁이 발생했다. 공권력과 탄탄한 조직을 지닌 할리스코 카르텔 사이에 발생한 무력분쟁은 이미 2019년 초반에 한계점을 넘어섰다.

평화활동

2019년 미주 대륙에서는 새로 설치된 아이티유엔통합사무국, 유엔아이티정의임무단, 콜롬비아의 유엔진상조사단(UN Verification Mission), 미주기구(OAS)의 콜롬비아 평화프로세스 지원

임무단(Mission to Support the Peace Process in Colombia) 등 4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진행되었다. 추가적으로 미주기구는 니카라과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온두라스의 부패와 처벌에 대항하기 위한 미주기구 임무단은 권한쟁신에 관해 온두라스 정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범죄폭력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 분쟁과 테러로 인한 사망을 훨씬 초과했다. 조직 범죄가 매우 심각한 미주는 살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9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지역이었다.

정치 불안

2019년은 많은 국가들에서 대규모 시위의 물결이 쏟아진,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던 한 해였다. 시위는 서로 다른 문제나 사건들로 촉발되었지만, 시위자들은 종종 2015년부터 시작된 경제 성장을 둔화에 따른 경제적 압박, 변함없이 높은 불평등 수준, 민주주의의 제도와 프로세스에 대한 불만, 끊임없는 정재계 엘리트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 등 유사한 기저문제들을 원인으로 가지고 있었다. ●



4.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총 7개 국가에서 활발한 무력분쟁이 있었다. 남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주요 국제화된 내전), 인도(고강도 국경 및 국내 무력분쟁), 파키스탄(고강도 국경 및 국내 무력분쟁) 등 3개의 국가에서 무력분쟁이 있었고, 나머지 4개는 인도네시아(저강도 국내 무력분쟁), 미얀마(고강도 국내 무력분쟁), 필리핀(고강도 국내 무력분쟁), 그리고 태국(저강도 국내 무력분쟁)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했다.

2019년에는 다음 두 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우려의 원인으로 부상했다. 하나는 민족적 또는 종교적 양극화, 혹은 둘 다에 근거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관련한 폭력의 증가이며, 다른 하나는 초국가적으로 활동하는 폭력적 지하드 그룹의 증가이다. 이들 중 가장 잘 조직된 단체들의 일부가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2019년에는 다음 두 가지 평화프로세스가 악화되었다. 먼저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논의가 중단되었다. 또한 2019년 9월 탈레반-미국 평화회담이 무너지면서 (2019년 11월 회담 재개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장기화된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 등장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력분쟁으로, 2019년에는 거의 42,000명이 사망했다. 탈레반과 같은 반정부 단체의 급조폭발물(혹은 사제폭탄, IED)을 사용한 자살 공격과 미국의 공습 확대로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핵무장 국가 간 무력 분쟁

인도가 주둔한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에 본거지를 둔 한 무장단체에 의한 자살공격이 지난 2019년 2월에 일어났다. 이것은 지난 30여년 중 카슈미르에서 일어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이 사건은 두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짧지만 강렬한 갈등을 불러왔다. 즉각적인 위기가 사라졌지만 둘 사이의 긴장은 일년 내내 계속되었다. 인도는 이 사건이 무언의 전략적 자제 정책을 종식시켰으며, 파키스탄과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공격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 이제 '뉴노멀'이 되었다고 밝혔다.

미얀마

2019년 미얀마는 라카인(Rakhine)주에서 폭력이 증가하면서 평화프로세스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방글라데시 난민수용소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지만, 2017년에 강제로 이주되었던 약 100만 명의 로힝야(Rohingya)족 중 자발적으로 다시 미얀마로 돌아온 수는 훨씬 적어 보였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미얀마의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 민족에 대해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과 정의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웠다. ●



5.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 유럽

2019년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 사이에 발생한 저강도 국제화된 국내 무력분쟁이 1건 있었다. 이 무력분쟁으로 인해 2014년 4월 이후 약 1만 3천명(적어도 3,330명의 민간인과 약 9,670명의 전투원)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전투 관련 사망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2018년 886명이었던 전투 관련 사망자는 2019년 405명으로 줄어들었다.

우크라이나의 긍정적 변화

2019년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변화,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Volodymyr Zelensky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가 갈등해결을 위해 슈타인마이어 방식(Steinmeier formula)을 수용하면서 추가 협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자 통제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해당 지역들이 특별자치의 지위를 갖도록 했다.

2019년 12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은 3년 넘게 지속된 첫 노르망디 형식 정상회의에서 슈타인마이어 방식을 승인했다. 그리고 연말까지 ‘완전하고 포괄적인’ 휴전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 상반기에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의 순서와 적용, 분쟁의 내용과 국가들의 관여도 등에 대한 당사국들 사이의 근본적인 의견불일치는 지속되었다.

지속적인 안보문제

유럽 대부분이 약 20년 동안 평화롭게 보였지만, (a) 러시아와 유럽의 많은 다른 지역들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 (b)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

은, 특히 구 소련 지역의 서부 발칸반도 및 키프로스 등의 분쟁, 그리고 (c)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의 무력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럽의 남부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안보대응 등의 다양한 긴장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예로 키프로스에서는 2019년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고, 해상국경분쟁 및 지역권력경쟁이 긴장이 가중되면서 분쟁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 어려워졌다.

유럽에서는 2019년 동안 18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는 이전 해에도 활동 중이었다.

불규칙한 이주와 테러

최근 몇 년간 유럽 안보 사고 security thinking의 최전선에 있었던 불규칙한 이주와 테러 irregular migration and terrorism는 모두 유럽 남부에서 발생한 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U는 유럽으로 오는 불규칙한 이주 관리의 최전선에 있어왔으며, 이는 EU가 리비아, 터키와 일하게 된 주된 동력이었다.

동향보고에 따르면 테러의 위험은 줄고 있다고 하지만, 2019년 테러는 여전히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었다. 또한 귀국하는 외국용병들에 대한 대처는 유럽의 주요 대테러 도전 중 하나였다. ●



6.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 중동과 북아프리카

2019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이집트(고강도, 국내 무력분쟁), 이라크(국제화된 내전), 이스라엘(저강도, 국가와 정치집단간의 무력분쟁), 리비아(국제화된 내전), 시리아(주요 국제화된 내전), 터키(저강도, 국가와 정치집단 및 국내 무력분쟁) 및 예멘(주요 국제화된 내전) 등 2018년과 동일한 7개국이 무력분쟁을 겪었다. 리비아를 제외한 모든 무력분쟁은 2018년에 비해 사망자가 적었다.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이러한 분쟁의 다수는 많은 비국가 행위자들, 해당지역 및 세계 강대국들과 상호연결 되어있다. 2019년 이란과 미국(그리고, 미국의 걸프 동맹국들) 사이의 긴장이 심각한 국가간 군사갈등으로 확대될 뻔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알제리, 이집트, 이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영토 및 튀니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서 발생한 복잡하고 상호연결된 무력분쟁

터키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를 공표한 이후 이라크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하였고, 시리아 북부에 새로운 급습을 가했다. 이후 러시아와 터키는 2019년 10월 시리아 북동부에 ‘안전지대’를 만들었고, 시리아 정부는 국가의 대부분을 장악하며 전략적 이익을 얻었다. 이라크는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전투관련 사망자 수가 고강도 무력분쟁 단계에 있지만, 국가적 제도는 약하고 시위는 증가하는 등 대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분쟁 후 국가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2019년에도 복잡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계속되었다. 골란고원(Golan Heights)과 서안지구(West Bank)의 불안정성이 가자(Gaza)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미국이 2019년 중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계획안의 경제부분을 발표했지만 연말까지 근본적인 갈등해결에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2019년 리비아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정부 사이의 싸움이 확대되었다. 이 문제는 이집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가 한 쪽을, 카타르와 터키가 다른 쪽에 관여하면서 분쟁의 국제화를 심화시켰다.

예멘

예멘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었다. 2018년 12월에 체결된 스톡홀름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조치가 취해졌지만, 2019년 11월 리야드(Riyadh)에서 평화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예멘의 남부에서는 전투가 심화되고 반-후티 연합(Anti-Houthi coalition) 내 라이벌 경쟁이 내전 안의 내전으로 확대될 뻔 했다. 스톡홀름협약과 리야드협약은 예멘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향한 잠재적 해결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연합 내외의 싸움과 함께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



7.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9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및 수단 등 적어도 15개국에서 무력분쟁이 있었다. 이 중 8개 국가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은 저강도 국내 무력분쟁이었고,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부르키나 파소, 말리, 남수단, 카메룬 등 7개국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은 고강도 무력분쟁이었다. (직접 혹은 대리자를 통한) 국가행위자들의 행위, 폭력적인 이슬람단체, 여타 무장단체, 그리고 범죄 네트워크들의 초국가적 활동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무력분쟁이 국제화되었다. 갈등의 역동성과 민족적, 종교적 긴장은 종종 국가의 약점, 부패, 비효율적인 기초 서비스 제공, 천연자원에 대한 경쟁, 불평등 및 소외감 등과 결합했다. 계속되

는 대테러 활동의 국제화와 기후 변화 영향의 증가라는 두 가지 교차 문제는 계속해서 지역 안보의 문제를 형성했다. 물 부족은 특히 심각한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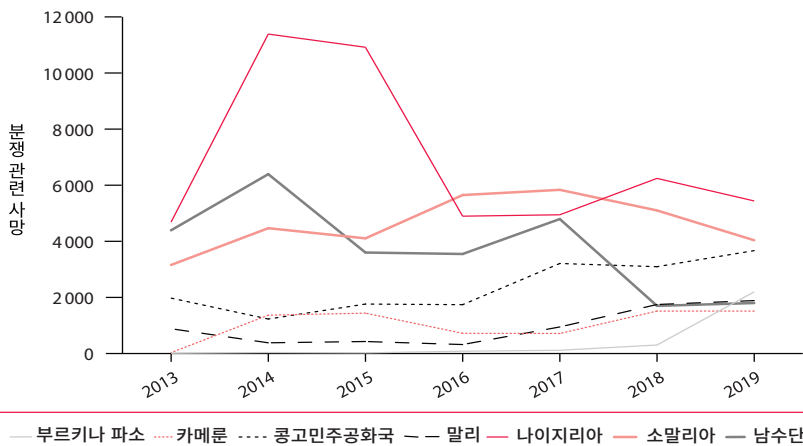
평화활동

2019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다자간 평화활동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소말리아 및 남수단과 같이 무력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여러 대규모 활동들을 포함하여 2018년보다 2건 감소한 20건이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위 지역에 배치된 인원은 현재 97,519명으로 4년 연속 감소하여 2012년 이래 최저점에 도달했다.

사헬과 차드지역의 위기 악화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차드,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등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은 2019년 모두 악화되었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과 나이지리아에서 차드 호수 전역으로 퍼져 나간 보코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고강도 무력분쟁과 관련한 사망자



자료: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 'Data export tool', [n.d.].



사헬 지역과 차드호수 지역의 국외 및 다자간 평화 및 대테러 활동

이름	기여국가 및 단체	시작/		파견국가
		설립	인력수준	
EU 사헬과 니제르 역량임무단 (EUCAP Sahel Niger)	EU 회원국가	2012	경찰 및 민간인 115명	니제르
유엔말리안정화임무단 (MINUSMA)	유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방글라데시, 이집트, 중국 및 독일)	2013	군인, 경찰, 민간인 총 14,438명	말리
EU 말리 훈련임무단 (EUTM Mali)	EU 회원국가	2013	군인 697명, 민간인 3명	말리
다국적군대 (MNJTF)	베닌, 카메룬,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2014 ^a	군인 10,746명	카메룬,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바르칸 작전 (Operation Barkhane)	프랑스	2014 ^b	군인 4,700명	부르키나 파소, 차드, 말리, 니제르
EU 사헬과 말리 역량임무단 (EUCAP Sahel Mali)	EU 회원국가	2015	경찰 및 민간인 127명	말리
사헬5개국 연합군 (G5 Sahel)	부르키나 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2017	군인 5,000명	부르키나 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a 1994년 나이지리아 군대만으로 시작되었고, 1998년 차드와 니제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
 b 2013년 1월에 시작되어서 2014년 7월에 종료된 서발작전(Operation Serval)에 이어서 실시됨.

하람과 같은 무국적 비정부 단체의 확산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은 농촌반란군과 연결되어있고, 이들은 공동체 간의 긴장과 소외된 공동체의 불만을 이용했다.

2019년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정부와 무장 무슬림단체와의 갈등, 무장한 민족집단과 무슬림단체 간의 분쟁, 그리고 공동체간의 폭력이라는 세 가지 상호 연결된 분쟁이 확대됨에 따라 무력분쟁에 의한 사망자가 매우 증가했다.

중앙아프리카

2019년 중앙아프리카에서는 (a)정부와 무장 단체 간의 새로운 평화협약의 실행과 (b)동부지방의 안보불안과 정치적 폭력의 증가, 그리고 홍역과 에볼라 발발로 인해 계속되는 보건 비상 사태를 동반했던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전환기라고 하는 두 가지 주된 과제가 있었다. ●



8. 군사비 지출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미화 1조 9,17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이며 1인당 미화 249달러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2019년의 지출은 2018년보다 3.6% 증가하였고, 2010년 대비 7.2% 증가하였다.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5년 연속 증가하였고, 2010-19년 중 가장 큰 액수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의 2.6% 증가율을 넘어섰다. 군사비 지출은 유럽이 5.0%,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4.8%, 미주는 4.7%, 아프리카는 1.5%가 각각 증가함으로써 세계 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5년 연속 SIPRI는 중동 지역의 총 지출 추정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최대 군사비 지출 국가

총지출의 증가는 세계 군사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지출 패턴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2년 연속 지출을 늘려 2019년에는 미화 7,320억 달러로 늘렸다. 이는 미화 2,610억 달러를 지출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출을 하는 중국보다 약 2.7배가 큰 금액이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8년보다 5.1%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대비 85%가 증가하였다. 2018년 세 번째로 큰 군사비 지출을 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년대비 16% 감소하면서 2019년에는 5위가 되었다. 인도의 지출은 미화 711억 달러로, 처음으로 세 번째로 큰 지출을 한 국가가 되었고,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이 4.5% 증가하면서 5위에서 4위가 되었다.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프랑스가 2019년 군사비를 미화 501억 달러 지출하면서 다시 한번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상위 15개국 중 2019년 가장 많은 군사비 지출의 증가를 보인 곳은 독일이었다. 독일의 군사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지역	지출	변화
	(미화, 단위: 10억)	(%)
아프리카	(41.2)	1.5
북아프리카	(23.5)	4.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7.7	-2.2
미주	815	4.7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8.7	8.1
북미	754	5.1
남미	52.8	0.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523	4.8
중앙아시아	2.2	16
동아시아	363	4.6
오세아니아	29.0	3.5
남아시아	88.1	6.4
동남아시아	40.5	4.2
유럽	356	5.0
중앙유럽	31.5	14
동유럽	74.0	4.9
서유럽	251	3.9
중동
전체	1 917	3.6

() = 확실치 않은 추정치; .. = 자료 없음.

지출 단위는 현재 (2018년) 미화. 모든 변화는 2018-2019 사이의 실제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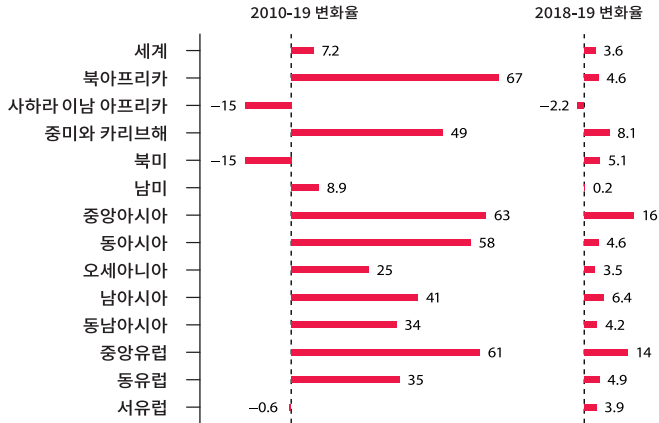
비 지출은 10% 증가하여 미화 49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 비교

군사비 지출은 세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2019년 유럽의 총 군사비 지출은 총 3,560억 달러로 전 세계 지출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 지출의 43%에 달하는 미화 8,150억 달러를 지출하는 미주 내의 국가들과 전체의 27%에 달하는 미화 5,230억 달러를 지출하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못 미치는 액수이다. 중동의 지출은 전 세계의 약 9.4%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출은 미화 412억 달러이며 이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2.1%로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낮다.



세부지역 별 군사비 지출 변화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2014년의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2%로 늘리고 군사비의 20% 이상을 장비에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비에 대한 군사비가 20% 이상 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 국가는 2014년 5개 국가에서 2019년 14개 국가로 증가했다. 총 군사비의 일부로서 장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5개의 국가는 불가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이며, 이들은 모두 중앙유럽국가들이다. 장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무기를 현대화하거나 기존 무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등의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주된 이유는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졌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군사비 지출 대비 장비 지출의 증가는 보다 완만했다.

군사비 지출의 투명성

군사비 지출 추적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유엔과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관리하는 군사비 지출 정보교환에 대한 보고 비율은 2019년에도 계속 감소하였고, 남미 등록 기관에는 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비 지출의 투명성은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 군사정권이 지배하는 국가들은 종종 군사비 지출이 정부예산 밖에서 조달된다. 2019년 유엔보고서에 나타난 미얀마의 경우 예산 외 자금지원 메커니즘과 군사비 지출의 불투명성이 어떻게 군대의 행동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소수자들에 대한 범죄를 지속시키는지 강조하였다. ●



9. 국제 무기 이동 및 무기 생산 동향

주요무기의 국제 이동 규모는 2010-14년과 2015-19년 사이에 5.5% 증가하며 냉전 종료 이후 최고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2000년대 초 이후부터 계속되었다. 다만 2015-19년 총 거래량은 무기가전이 정점이었던 1980-84년 사이의 총 거래량보다 33% 낮았다.

주요무기의 수입

SIPRI는 2015-19년에 160개 국가를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 확인했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집트, 호주, 중국 등은 5대 무기수입국으로, 전체 무기수입의 36%를 차지했다. 2015-19년에 주요무기의 공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체의 41%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중동이 35%를 차지했다. 중동이 공급받은 비율은 1950-54년 이후 5년을 단위로 하는 13번의 기간 중 어느 때보다 높다. 2010-14년과 2015-19년 사이에 중동(61%)과 유럽(3.2%) 두 지역으로의 무기공급은 증가한 반면, 미주(-40%), 아프리카(-16%), 아시아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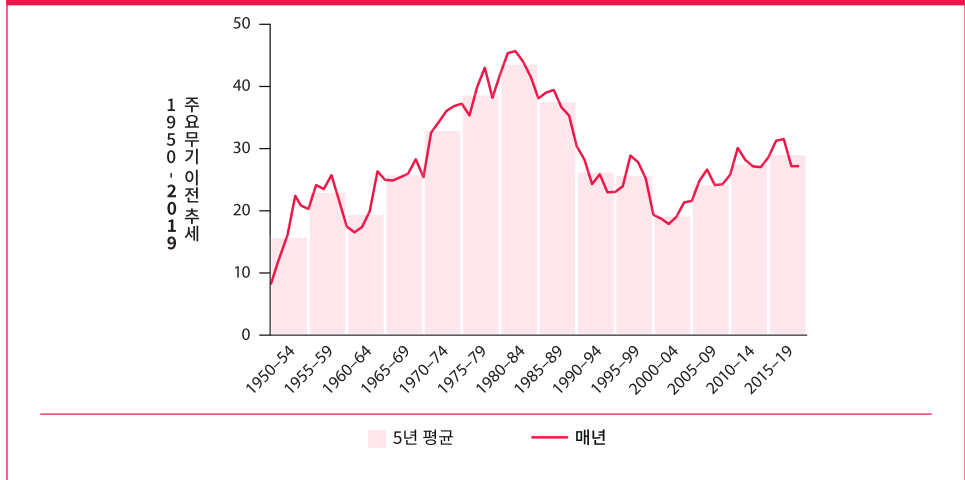
오세아니아(-7.9%)로 들어가는 흐름은 줄었다.

주요무기의 공급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등 5개국은 2015-19년 사이 전체 무기수출의 76%를 수출하였다. 1950년 이후 미국과 러시아(혹은 1992년 이전의 소련)는 항상 가장 큰 무기공급국이었다. 2015-19년 미국의 무기수출은 전 세계 수출 총액의 36%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0-14년 기간보다 23% 높은 것이다. 2015-19년 미국에게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은 2010-14년 대비 7.4%가 증가하여 미국 무기수출의 25%에 달하는 양을 수입했다.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무기수출은 18% 감소했으며, 전 세계 무기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0-14년 27%에서 2015-19년 21%로 떨어졌다. 프랑스(72%), 독일(17%), 중국(6.3%) 등 다른 3대 무기공급국의 수출은 모두 2010-14년과 2015-19년 사이 증가했다.

상위 10개의 무기공급국은 역사적으로 미국, 러시아 및 서유럽 국가들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이 리스트에는 과거에 상위 10개 무기공

주요 무기 이전 추세, 1950-2019



주요 무기 수출입국, 2015-2019

수출국	비중 (%)	수입국	비중 (%)
1 미국	36	1 사우디아라비아	12
2 러시아	21	2 인도	9.2
3 프랑스	7.9	3 이집트	5.8
4 독일	5.8	4 호주	4.9
5 중국	5.5	5 중국	4.3
6 영국	3.7	6 알제리	4.2
7 스페인	3.1	7 한국	3.4
8 이스라엘	3.0	8 아랍에미리트	3.4
9 이탈리아	2.1	9 이라크	3.4
10 한국	2.1	10 카타르	3.4

급국에 포함되었던 나라들이 계속해서 포함되었다. 2015-19년,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전에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는 상위 10개 무기공급국에 이름을 올렸다. SIPRI가 파악한 2015-19년에 주요무기의 수출국으로 확인한 68개국의 대부분은 소규모 수출국이다. 상위 25개국은 전체 수출의 99%를 공급했다. 북미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은 전체 무기수출의 87%를 차지했다.

무기이전의 투명성

무기수출입을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OCA)에 보고하는 국가의 수는 적은 수준을 유지했고, 다양한 국가적, 지역적 보고의 도구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3년 무기거래조약(ATT)에 따라 무기수출입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하는 국가의 수는 2013년 53개국에서 2018년 61개로 증가했지만, 더 많은 국가들이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의 비율은 2016년 71%에서 2018년 66%로 떨어졌다.

국가 무기수출의 재무가치

SIPRI의 무기이전에 관한 자료는 이전된 무기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많은

무기수출국들은 자국이 수출한 무기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SIPRI는 2017년* 세계 무기거래의 총 가치는 적어도 미화 9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기생산과 군수기업

SIPRI가 발표한 세계 100대 무기생산 및 군수기업 목록은 국내판매와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실적을 기록한 무기산업 기업의 순서를 매긴 것이다 (중국 제외). 2018년* SIPRI의 세계 100대 기업의 총 무기 판매 가치는 미화 4,200억 달러로 2017년에 비해 4.6% 증가했다. 무기판매 증가는 주로 SIPRI 100대 기업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에서 발생했다. ●

* 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



10. 세계 핵전력

2020년 초 기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의 국가는 총 약 13,4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3,720개는 현재 작전 중인 부대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중 약 1,800개는 고도의 작전경계태세로 유지되고 있다.

핵무기 보유상황

전체적으로 핵탄두 재고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미국과 러시아가 퇴역 탄두를 해체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 미사일 및 항공기 전달 시스템, 핵무기 생산 시설 등을 교체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값 비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2019년 말 미국은 일부 원자력 탄두 미사일 잠수함에 새로운 저위력 탄두¹low-yield warhead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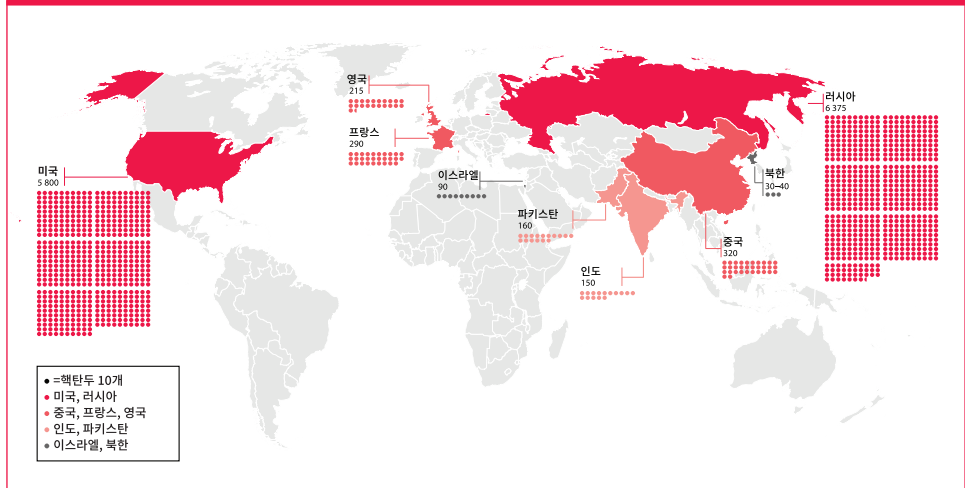
다른 핵무장 국가의 핵무기 수는 훨씬 적지만 이들 모두는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또는 배치할 의사를 발표했다. 중국은 무기

고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에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9년 핵무기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전달 시스템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움(일시중지)을 지속했지만, 북한은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군사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다.

투명성 결여

핵무기 보유 현황과 핵전력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여부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핵비축량과 핵전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지만, 2019년 미국 행정부는 비축량의 규모를 공개하는 관행을 종료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일부 정보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 따라 집계된 핵전력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핵전력을 공개하고 있지만, 핵전력의 숫자나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

2019년 세계 핵무기 비축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경계는 SIPRI의 승인 또는 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9년 세계 핵분열 물질 보유 현황

핵무기 원료는 핵분열 물질로서 고농축우라늄(HEU)이거나 추출 플루토늄을 사용한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용도로 생산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주로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파키스탄은 주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만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는데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한 모든 국가가 핵분열 물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 핵분열 물질에 관한 전문가 패널(IPEM)은 전 세계 핵분열 물질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세계 보유 현황, 2019

고농축우라늄	~1 335톤
추출 플루토늄	
군용 보유량	~220톤
민간 보유량	~300톤

도와 파키스탄 정부는 그들의 일부 미사일 실험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상태나 크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것을 인정했지만 핵무기 사용능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핵무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오랜 정책을 가지고 있다. ●

2019 세계 핵전력

국가	배치된 탄두	기타 탄두	총비축량
미국	1 750	4 050	5 800
러시아	1 570	4 805	6 375
영국	120	95	215
프랑스	280	10	290
중국	-	320	320
인도	-	150	150
파키스탄	-	160	160
이스라엘	-	90	90
북한	-	[30-40]	[30-40]
전체	3 720	9 680	13 400

-는 0, ()는 불확실한 수치로 총계에서 제외.

참고: '기타 탄두'란 저장고에 보관된 작전 탄두와 해체 예정 탄두를 포함한다.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계수 방법이 달라 위에 제시된 러시아와 미국의 수치는 조약에 명시된 수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모든 수치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다. SIPRI는 매해 새로운 정보와 이전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세계 핵전력 정보를 수정한다.



11. 핵 군비축소, 군비통제 및 비확산

러시아-미국 간 핵 군비통제

러시아-미국 간 핵 군비통제와 관련한 성과가 유지되리라는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9년에는 냉전시대의 중요한 무기통제 조약이었던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이 무너지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오래된 분쟁이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동식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러시아가 개발하고 배치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했다. 2019년 8월, 미국은 러시아가 규정 준수와 관련한 염려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조약 탈퇴를 확정했다. 이 결정으로 조약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유럽에 새로운 핵무기의 배치가 가능해졌다.

러시아와 미국은 그들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핵무기 통제협약인 2010년 신전략무기 감축조약을 연장하는 것 또한 실패했다. 양국은 2018년 특정기한까지 이 조약에 따른 최종 전력축소제한을 성취했지만, 2021년 2월까지 조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조약은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중국 전략 능력의 상당한 발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발생한 미사일 방어 및 첨단 무기 전달 시스템과 관련한 긴장 상황 등과 맞물렸다.

북한-미국 간 핵 대화

2019년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전달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양국은 전년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관계 수립과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상들의 공약에 대해 외교적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19년 2월에 열린 두 번째 정상 회담은 구체적인 결과없이

끝났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에 대해 자체 선언 한 모라토리움(일시중지)을 계속 유지하였지만, 지난 1년 간 몇 가지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을 포함하여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여러 번의 비행 시험을 실시했다.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

2019년에는 이란의 핵확산관련 활동들을 제한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온전히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8자 협약인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실행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 한 해 동안 이란은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 한 이후) 미국의 제재 재부과^{re-imposition}에 대응하여 협약에서 정한 한도 준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은 다른 협약 참가국들에게 미국 제재의 역외 영향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 이란의 주요 혜택 중 하나인 제재 완화를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국제 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협약에 따라 기관의 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돕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다자간 군비통제와 군비축소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의 틀에 기반하여, 2020년 조약에 대한 평가 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세션이 2019년 4월과 5월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 조약 회원국들 사이의 지속적인 분열이 발생했고, 준비위원회는 2020년에 있을 조약에 대한 평가 회의를 위한 공동 권고안에 동의하지 못했다.

또한 핵무기의 개발, 배치, 소유, 사용 및 위협 등을 포함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핵무기사용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 따른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공격무기의 총합
(2011년 2월 5일, 2019년 3월 1일, 2019년 9월 1일)**

데이터 범주	조약의 제한 수치	러시아		미국			
		2011년 2월	2019년 3월	2019년 9월	2011년 2월	2019년 3월	2019년 9월
배치된 ICBMs, SLBMs, 중폭격기의 개수	700	521	524	513	882	656	668
배치된 ICBMs, SLBMs, 중폭격기 탄두의 개수 ^a	1 550	1 537	1 461	1 426	1 800	1 365	1 376
배치되거나 배치되지 않은 ICBMs, SLBMs, 중폭격기의 발사대 대수	800	865	760	757	1 124	800	800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참고: 이 조약은 2011년 2월 5일에 발효되었으며, 조약 한도는 2018년 2월 5일까지 도달해야 했다.

^a 각 중폭격기는 탄두 1개만 탑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 금지조약인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었다. 12월에 있었던 유엔총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조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9년 9월에는 격년으로 열리는 제11차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촉진을 위한 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러시아가 위 조약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배경으로 열렸다. 11월에는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중동 지역 구축에 대한 회의의 첫 번째 세션이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렸다. 중동에 핵무기가 없는 지대를 구축하라는 요청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12.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시리아와 영국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의혹은 2019년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의해 계속 조사되었다. 2019년 3월 시리아 진상조사단은 2018년 4월 두마(Douma)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당한 근거'(reasonable grounds)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의 일부 조사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몇 국가들은 이를 제기했다. 시리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2018년 3월 영국에서 있었던 노비츠크(novichok) 신경작용제 계열의 독성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 권한

화학무기 사용의 가해자들을 식별하는 조사확인팀(Investigation and Identification Team(IIT))을 설립하기로 한 2018년의 결정 채택에 대해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 사이의 분열은 2019년에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분열들은 화학무기금지기구에 높은 수준의 제도적 스트레스를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확인팀은 2019년 3월에 완전히 운영되었으며, 9건의 사건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올해의 주요 회의인 제24차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회의는 일상적인 검증을 받는 화학물질 목록에 대한 추가에 처음으로 동의했다. 추가된 화학 물질 군에는 2018년 영국에서 사용된 노비츠크 제제가 포함된다.

화학무기의 폐기

2019년 10월 31일 현재 신고된 카테고리1 화학무기의 97.3%가 국제 검증에 따라 폐기되었다. 미국은 아직 폐기하지 않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지만, 계획

된 일정 내에 남은 폐기 활동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무기 군비통제

2019년 주요 생물무기군축과 비확산활동은 1972년 생물및독소무기금지협약(BWC)의 회기간 발생하는 전문가회의(MXs), 당사국회의(MSP), 그리고 유엔총회 제1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2019년 당사국회의는 각 전문가회의의 보고서를 고려했지만, 2018년과 같이 당사국회의 보고서에는 단순히 '전문가 회의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여 검토하였던 심의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장은 보고의 교착 상태를 우회하고, 실질적인 전문가회의의 작업을 당사국회의 및 2021년 검토 회의에 보내주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시작했다. 이 과정은 당사국이 3년이라는 회기 동안 일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며, 작업을 종합하고 수렴영역을 식별하도록 격려하며, 대립적 접근을 피하도록 장려한다.

이 분야의 새로운 추세 중 하나는 생물학적 위협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둘러싼 국제적 대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가 주요 기여자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향후 몇 년 동안 생물무기 군축 및 비확산 분야의 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



13. 재래식무기 통제 및 신무기 기술

재래식무기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도구

비국가 무장단체에 의한 급조폭발물(IED)물 사용을 포함한 ‘인구밀집지역에서 소이무기 및 폭발성무기사용(EWIPA)’에 대한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1981년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Convention)의 틀 안에서의 토론은 새로운 구체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 협약에 따른 진전이 미진하자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무기통제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2019년 제네바에서 ‘인구밀집지역내 소이무기 및 폭발성무기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일련의 공개 협의 중 첫 번째를 소집하여 2020년 선언을 마무리하고 채택하고자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행동규범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차이는 2019년 두 가지 유사한 프로세스를 가져왔다. 하나는 개방형 워킹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정부 전문가 그룹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어느 쪽이든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나올 것 같지 않다.

현재 국가들에서 대인지뢰(APM)를 새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분쟁 중에 있는 비국가 무장단체가 사용하는 문제, 특히 움직임을 감지하여 폭발하도록 제작된 급조폭발물(victim-activated IED)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인지뢰는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인도,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예멘 등 최소 6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비국가 무장단체에 사용되었다. 서사하라의 비국가 무장단체인 폴리사리오 전선(Polisario Front)은 2019년에 비축된 지뢰를 모두 폐기하였다. 2019년 시리아에서는 집속탄(cluster munition)이 계속 사용되었다.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을 규제하려는 노력은 1981년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의 틀 안에서 정부전문가그룹(GGE) 형식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무기 시스템의 자율성은 무한할 수 없다는 합의가 나타났지만,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 2019년에 정부전문가그룹은 11개의 지침 원칙(이 중 10개는 2018년에 제안됨)을 채택하고 2020년과 2021년에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정부전문가그룹이 2021년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에 대한 검토회의에서 실질적이고 정치적으로 과감한 권고를 제시하기를 원하지만,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사력을 가진 몇몇 국가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우주공간 군비경쟁 방지

2017년 이후 일부 국가들, 특히 미국은 우주공간을 전쟁의 영역 또는 공격 및 방어 군사 작전을 위한 영역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프랑스, 인도,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2019년 새로운 우주전용 군부대를 발표했으며, 2019년 3월 인도는 대위성무기(anti-satellite weapon)를 테스트했다. 더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19년에 우주가 이제 작전영역이라고 발표했다. 우주공간에서 갈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의제 항목인 외기권군비경쟁방지(PAROS)를 포함한 우주 활동의 안보 및 안전 측면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



14.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19년에도 재래식무기와 재래식, 생화학, 핵 무기 및 그 전달체계와 관련된 이중용도 거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다자간, 지역적 노력은 계속되었다. 무기거래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합의된 표준을 수립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및 다자간의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참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동시에 확대된 국가의 자원과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들에 의해 이러한 수단들의 힘이 점점 더 도전 받고 있다는 징후가 증가했다. 이는 ‘2013년 무기거래 조약(ATT)’에 따른 의무적인 보고 및 자금 조달 의무, 유엔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한 보고된 다양한 위반사항,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서로 다른 수단들에 의해 발생한 의무들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내의 조직들 내외에서 발생하는 차이들을 잘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들은 2019년 이러한 합의들의 많은 기술적인 측면을 확장하고 개발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들은 어떻게 무기거래 조약에 따른 주요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일련의 우수사례문서 및 수출을 통제하는 다양한 국가들을 연결하는 통제목록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무기거래조약

제5차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회의는 2019년 8월 제네바에서 열렸다. 긴장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조항들, 특히 젠더기반폭력(GBV)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명시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 무기거래조약은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포함한 무기 또는 무기 이전 통제 분야의 유일한 국제협약이며,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특정하려는 국가

발효중인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19년

유엔(13개 무기금수조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부분적)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 이란(부분적)
- 이라크(NGF) • 이슬람국가(Da'esh),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과 단체 • 북한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 소말리아(부분적)
- 남수단 • 수단(Darfur)(부분적) • 탈레반
- 예멘(NGF)

EU(21개 무기금수조치)

유엔 무기금수조치 이행(10개):

- 알-카에다, 탈레반 및 관련 개인과 단체
- 중앙아프리카공화국(부분적)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 에리트레아(2018년 12월 해제) • 이라크(NGF)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 북한 • 소말리아(부분적) • 예멘(NGF)

유엔 무기금수조치 변용 적용(2개):

- 이란 • 수단(Darfur)

유엔 무기금수조치 이전 설정(1개):

- 남수단

유엔과 무관한 독자 무기금수조치(8개):

- 벨라루스 • 중국 • 이집트 • 미얀마 • 러시아
- 시리아 • 베네수엘라 • 짐바브웨

아랍연맹(1개 무기금수조치)

- 시리아

ISIL=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레반트와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국가); NGF=non-governmental forces(비정부군대); 부분적=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는 해당 국가 정부의 무기거래가 가능하다.

들의 노력은 다른 수단들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에 미국은 무기거래조약에 ‘서명취소’ 의사를 밝혔고, 중국은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반된 움직임은 분명히 조약의 회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



만,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19년에는 13개의 유엔 무기금수조치, 21개의 EU 무기금수조치, 1개의 아랍연맹 무기금수조치가 시행되었다. 새로운 금수조치가 부과되거나 해제된 것은 없었다. EU의 무기금수조치 중 10개는 유엔이 부과한 금수조치범위와 일치했으며, 3개는 기간과 지리적 범위, 혹은 대상으로 하는 무기유형측면에서 더 광범위했고, 8개는 유엔에서는 대응하는 조치가 없었다. 아랍연맹이 시행한 유일한 무기금수조치였던 시리아에 대해 유엔은 대응하는 조치가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의미의 위반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무기금수조치는 분쟁으로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거의 막지 못했다. 2019년에 일부 무기이전은 EU의 무기금수조치에 어떤 특정한 활동과 상품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국가의 보고와 독립적 감시의 메커니즘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잠재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통제체제

네 가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원자력공급그룹(NSG), 재래식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바세나르체제(WA)는 이중용도물품에 대한 수출통제에 관한 무역통제목록과 지침을 검토했다. 네 개의 체제 중 어느 것도 2019년 동안 여러 체제에서 많은 출원이 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참여국가(또는 파트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정학적 긴장은 체제들의 작업, 특히 조달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성격의 작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통제목록수정과 같은 체제작업에 있어서 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바세나르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버 감시 및 사이버 전쟁 도구에 대한 새로운 제어가 포함되었다. 몇몇 체제는 새로운 기술의 범위를 포함하여 통제 목록의 중복에 대해 서로 더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EU 통제

공동시장에서 네 가지 수출통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EU는 이중용도품목 및 어느 정도 군사품목의 수출, 중개, 운송 및 환적에 대한 통제를 위한 공유된 법적 기반을 설정했다. 2019년에는 EU의 두 가지 수단인 무기수출에 대한 EU 공동입장(EU Common Position on Arms Exports)과 EU이중용도규정(EU Dual-use Regulation)이 검토의 대상이었다. EU공동입장에 대한 검토는 2019년 9월에 완료되었으며, 수단의 문구와 사용설명서 모두에 제한적인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2011년에 시작된 EU이중용도규정에 대한 검토는 2019년 말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2019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는 규제의 전반적인 목적에 대해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및 EU평의회들 사이의 차이를 강조했다. ●



부록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한 현행 협정 (2020년 1월 1일 기준)

- 1925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1925 제네바의정서)
- 1948 집단살해범죄 방지 및 처벌에 대한 조약 (제노사이드조약)
- 1949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 (제 4차 제네바협약); 1977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 1, 2의정서가 제4차 제네바협약에 추가
- 1959 남극조약
- 1963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
- 1967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우주조약)
- 1967 라틴아메리카의 핵무기금지에 관한 조약 (토라테로코조약)
- 1968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조약 (핵비확산조약, NPT)
- 1971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해저비핵화조약)
- 1972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1974 지하핵실험제한조약 (TTBT)
- 1976 평화적 목적의 지하 핵폭발에 관한 조약 (PNET)
- 1977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협약)
- 1980 핵물질물리적방호협약
- 1981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협약, 혹은 ‘비인도적 무기’에 관한 조약)
- 1985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라로통가조약)
- 1987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중거리핵전력조약 / INF조약)
- 1990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조약)
- 1992 항공자유화조약
-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 CWC)
- 1995 동남아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 1996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펠린다바조약)
- 1996 세부지역군비통제협정 (플로렌스협정)
- 1997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자재의 불법 제조 및 밀거래에 대한 미주 간 협약 (CIFTA)
- 1997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이전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 APM 협약)
- 1999 재래식무기 인수의 투명성에 관한 미주 간 협약
- 2001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지역 내 화기, 탄약 및 기타 관련 자재의 통제에 관한 의정서
- 2004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및 아프리카의 뿔 지역 내 소형무기의 방지, 통제, 축소에 관한 나이로비 의정서



2006 소형무기 및 탄약, 기타 관련 자재에 관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협약

2006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조약
(세미팔라틴스크조약)

2008 확산탄금지협약

2010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2010 소형무기 및 탄약, 그것의 제조, 수리 및
조립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품 통제에
관한 중앙아프리카 협약 (킨샤사협약)

2011 신뢰안보구축초치에 관한 2011년
비엔나문서

2013 무기거래조약 (ATT)

미효력 협정 (2020년 1월 1일)

199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1999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개정

2017 핵무기금지조약

안보 협력 기구

2019년에는 미크로네시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에 참여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브
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는 남미연합(UN-
ASUR)에서 탈퇴했으며, 에콰도르와 페루는 탈
퇴 절차를 시작했다. 남미진보포럼(PROSUR)으
로 알려진 새로운 지역 그룹을 구성하기 위한 토
론이 진행 중이었다. ●

2019년 주요 사건 연대기

1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예멘 유엔
호데이다합의지원단(UNMHA)을
설립

2월 6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 14개
의 무장단체가 평화협정에 서명

3월 27일. 인도는 처음으로 대위성무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음을 발표

4월 30일. 베네수엘라 야당지도자 후안 과이도
JUAN GUAIDÓ가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에 대한 반란 시도를 선동

5월 19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시리
아 카바나KABANAH에서 화학무기 사
용에 대한 추가 혐의를 조사

6월 20일 이란이 미군 무인 항공기를 격추
~21일. 미국은 이란의 정보 및 군용 자산
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대응

7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콩고민주
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으
로 선포

8월 2일. 미국은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
(INF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

9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 평화
회담이 ‘죽었다’고 선언

10월 9일. 터키는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시리아 북동부에서 군사 작전을 시
작한다고 발표

11월 4일. 미국은 2020년 기후변화에 관한
2016년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UN
에 공식 통보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



피스모모

피스모모는 수평적 서로배움을 통해 실천적 사유의 시민공동체를 확장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덜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평화활동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모모”라는 이름은 모두가 모두에게 배운다는 ‘서로 배움’에 대한 지향과 미하엘 엔데의 동화 ‘모모’에 담긴 근현대의 폭력적인 시간성에 대한 성찰과 깊은 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한 생명과 존재들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배움을 통해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근대적, 기계적, 강박적 시간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머뭇거림의 시간, 깊은 사유의 시간을 창조하고자 한다. 돌아봄과 돌봄이 부재한, 전체주의적 교육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들의 서로 배움”이라는 교육의 변화와 이를 통한 사회의 평화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본 연구소는 피스모모의 평화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사업을 통하여, 평화와 교육분야의 인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피스모모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천의 내용적 심화와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PEACE
MOMO**
피스모모
PEACEMOMO

홈페이지: peacemomo.org
이메일: peacemomo0904@gmail.com
대표번호: 02-6351-0904
팩스: 303-3441-0904
주소: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미래청 303-A

TEPI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TRANS-EDUCATION FOR PEACE INSTITUTE

홈페이지: momotepi.org
이메일: momotepi1211@gmail.com
대표번호: 02-6352-0904



SIPRI 데이터베이스

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1949년 이래 국가들의 연간 군사비 지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군사비 지출액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별 통화 금액을 US 달러로 일정하게 환산하고, 국내총생산(GDP)을 제공한다.

SIPRI 무기산업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100개 회사들의 2002년 이래 총 수익과 무기판매 및 군사 용역을 통한 업체별 수익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기업 제외)

SIPRI 무기이전 데이터베이스 1950년 이후 주요 국제적 재래식무기 이전에 대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IPRI 무기금수조치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유엔, 또는 국가간 조직과 같은 국제기구가 시행한 모든 무기금수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1998년부터 시행되어온 모든 금수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SIPRI 국가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무기수출에 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국가 보고서의 링크를 제공하며, 새롭게 발간되는 국가 보고서의 링크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다.

SIPRI 다자간 평화활동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유엔 및 비유엔 평화활동에 대한 정보 (위치, 배치 및 활동 기간, 수행과제, 참여국가, 수행인원, 비용, 사망자수 등)를 제공한다.

SIPRI 데이터베이스는 SIPRI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gnalistgatan 9
SE-169 72 Solna, Sweden
Telephone: +46 8 655 97 00
Email: sipri@sipri.org
Internet: www.sipri.org

2020 시프리 연감 구매하는 방법

2020 시프리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영문)

Oxford University Press 온/오프라인 출판

ISBN 978-0-19-886920-7, 양장본

ISBN 978-0-19-190570-4, 전자책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ipriyearbook.org에서 확인 가능함.

번역 이정철

검토 전세현, 정연주, 김영철

감수 이대훈

출판 북스모모 **디자인** 돌고래프레스



SIPRI YEARBOOK 2020

군비, 군축, 국제안보

SIPRI 연감은 군비, 군비축소,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권위 있고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국제안보, 무기, 기술, 군사비 지출, 무기생산과 무기거래, 무력갈등, 갈등관리, 재래식 무기, 핵무기, 생화학무기 통제와 관련한 개괄적 정세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2019년 정세를 다룬 SIPRI 연감 제51호를 요약한 자료이며,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무력분쟁 및 분쟁관리: 평화활동의 국제적 및 지역적 트렌드 뿐만 아니라, 미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무력분쟁 및 평화과정에 대한 개요
- 군사비 지출, 국제무기이전, 무기생산동향
- 세계 핵전력: 9개 핵무장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분석
- 핵 군비통제: 북한-미국 간 핵 외교, 중거리핵전력조약(INF조약)을 둘러싼 동향, 러시아-미국 간 핵 군비통제 및 군축, 이란 핵 합의의 이행 등을 주로 한 정보
-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혐의에 대한 조사와 생화학 전쟁에 대한 국제적 법률 도구 개발
- 재래식 군비통제: 자율살상무기체계, 사이버공간과 주거지역 폭발무기, 그리고 우주공간의 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대화 등의 국제적 노력에 중점
-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기술이전 통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포함한 무기거래조약, 다자간 무기금수조치와 수출통제체제 관련 주요 진전상황, 이러한 통제를 위한 EU의 법적 틀에 대한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함

이 외에도 부록으로 군비통제 및 군축 협정, 국제안보 협력기구 목록 및 2019년 주요 사건 목록을 수록하고 있음.